

 한국시멘트협회 KOREA CEMENT ASSOCIATION		보도해명자료		당신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발표일시	2013. 5. 31(금) / 총 3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멘트와 함께
담당 부서	기술 팀	담당자	· 기술팀장 이기석, 기술팀 과장 한찬수 · ☎ (02)538-8237/HP(010)3759-7108 E-Mail speedfire@cement.or.kr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 피해배상 결정에 대한 시멘트업계 입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의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총 6억 2,300만원 배상 결정』 발표 및 관련 보도와 관련, 시멘트업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시멘트업계는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에 미흡했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분쟁위가 두차례나 배상결정을 내린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청정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해 왔던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간과된 것이며 지역사회와 상생에 배치되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배상결정에 근거가 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에 이상은 있으나 시멘트가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쟁위 역시 이번 배상결정은 개연성, 즉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 수행기관에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인근에 위치한 시멘트공장을 그 원인으로 무리하게 지목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진폐환자의 발병원인으로 시멘트를 지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진폐와 시멘트 분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멘트 분진에는 진폐의 원인물질인 결정질 실리카(Quartz)가 함유되지 않았으며 시멘트와

시멘트반제품(Clinker) 등을 채취하여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한 바 결정질 실리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멘트 산업의 역사가 약 200년이 지났어도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진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진폐가 시멘트공장 근무자나 퇴직자 중에서 발생(직업성 질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은 지역주민의 진폐 발생(환경성 질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덧붙여 진폐 발병 주민들의 경우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과거 석탄광산에 근무했던 직업력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재검진 결과 진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셋째,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적은 청정한 지역입니다. 일례로 제천공장의 경우 먼지배출농도는 환경기준과는 상관없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제천시 대기측정망과 공장주변지역 대기질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장주변이 제천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게 측정되고 있는데, 비단 제천공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멘트 공장이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청정지역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의 주요 원인은 흡연 및 고령화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배상결정을 내린데 대해 시멘트업계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상거부가 아닙니다.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며 필요하다면 법원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을 통해서 논란 해소에 나서려는 시멘트업계의 의지입니다. 배상 등을 포함한 관련 조치는 논란 해소 이후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방송 등에서는 시멘트공장이 피해 원인이라는 단정하에 일방의 성급하고 아전인수격 입장만을 반복 보도함으로써 관련 법규준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힘쓰고 친환경산업을 지향해 온 시멘트업계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번 피해배상 결정은 기업과 주민간 깊어진 상처를 성급하게 봉합하려는 조치입니다. 양측간 납득할 수 없는 어설픈 봉합은 갈등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뿐입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시멘트업계는 정부에 학계,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는 재조사를 거쳐 환경성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멘트 공정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건강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